**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만족'은 선민에겐 필수고 의무다>의 줄거리 :**

이스라엘인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일의 달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족하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는 이 세상 것을 구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죽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선민에게 만족함은 필수고 의무입니다.

# '만족'은 선민에겐 필수고 의무다

**(창세기 45:16~28)**

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

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함은 가나안 땅에서 쓰던 모든 살림 도구들을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만족은 선민에겐 필수고 의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만족이란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나 삶의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민이라면 만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필수적인 일이고 의무적인 일입니다.

본문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많은 선물을 수레에 싣게 하며 왕실 수레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쓰던 모든 살림살이는 다 버리고 오면 애굽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식량과 옷을 주었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 냥과 옷 다섯 벌을 주었습니다. 일찍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같은 어머니를 둔 베냐민에게 20여 년 동안 형으로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아쉬움으로 형들과는 차별적으로 선물을 주었지만, 형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8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놀라운 표현인 이유는 야곱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수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마음속 아픔의 생생함은 무뎌졌을 것이지만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어 오직 애굽에서만 살 길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해합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야곱이 단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미함에 휩싸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밖에 나와 바로의 수레와 선물들을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8절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25~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다가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상황에서 계속 야곱, 야곱, 야곱이 언급되다가 마지막에서 “족하도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로 언급됩니다.

본문이 굉장한 이유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축복하시려는 뜻을 물리치고,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마음에서 좋아하던 대상은 세상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하는 전문가를 칭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붙잡은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마음에는 세상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영광의 세상 것이 가득합니다. 그 세상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세상 것을 구하는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서 “족하도다”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게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바랄 나위가 없다는 뜻이고, 더 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정체성은 구하기에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구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

류는 죄와 저주에 찌들어서 세상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 구하기의 달인 이스라엘이 “족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을 졸업하겠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라면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 구하기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에서 형의 복수심에 의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룬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서 자기 소유를 지켜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닥칠 불길한 일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붙잡고 세상 구하기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황망 간에 잃은 요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다움을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믿고 참담한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심지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천하가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애굽에서만 식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백성을 살리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이스라엘로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관점이 바뀝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을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 것을 지켜주시고 세상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것을 향한 바람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 나름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애착과 간섭과 관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의 20년을 오롯이 붙잡고 이끌어가셨음을 봅니다.

히브리 유랑민 출신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압니다.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특징을 드러낼 수 없던 그 기간에 오롯이 하나님 홀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이끄셨고, 이제 만백성을 기근에서 구하는 당사자가 되게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족하도다”라는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원천인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놓친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마주하는 성경 말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빙산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말문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인 제가 아들 요셉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서 한 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저 같은 유랑민의 아들인 요셉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억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세상 축복을 받아내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셉을 지켜달라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요셉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스라엘로서 요셉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할 수 없던 그동안 나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진이 빠져서 앉아있는데 지난 평생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아! 내 평생에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 눈을 떼신 적이 없구나.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워지지 않은 삶의 순간이 없었구나. 도대체 나는 왜 평생을 하

나님과 씨름을 반복하며 살았을까? 나를 향한 주권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하나님과 나는 왜 삶에 대해 씨름을 해야 했을까? 내 마음속에서 요셉이 죽었던 그 20년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바람이 완전히 죽었더라도 괜찮을 뻔 하였구나. 내가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던 때도 하나님의 주권은 오롯이 채우고 또 채우고 이 상황까지 되었다. 내 인생의 삶과 미래에 대해 죽었다고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인도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기느라 나를 위해 갖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셨구나. 아버지 이삭은 바로 이 믿음을 할아버지께 상속받아서 사셨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바로에게 축복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과정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곱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당신이 복이셨군요. 저는 당신을 붙잡고도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씨름 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한 번도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 것을 갖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시선에서는 언제나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이제까지 야곱이 그렇게 원하던 세상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감히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족하도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선민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구하는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정도이니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지만 선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민이 아니라면 세상 구하기를 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세상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은 어떨까요? 선민

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서 죽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구하기의 달인입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죽기 전에 "족하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가지려 했던 것이 있었고 지키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부질없다 여기고 버립니다. 살아있다는 요셉을 보고 죽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족하도다"라는 말에는 이제 마음이 만족해서 세상에 대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하다고 여길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정체성의 핵심은 세상 구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붙잡고 세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구하기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좋다고 여겨서 구하는 것들이 없어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그 자리에서 신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지금 이 상태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대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기를 구하기를 중단한다는 것이고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지금 만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민으로서 십자가를 생활화함이 필수이고 의무라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지금 이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라고 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 죽음 속에 담겨있습니다. 족함은 구하지 않음입니다. 족함은 바라지 않음입니다. 족함은 원치 않음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요셉을 꽉꽉 채우며 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을 때 세상을 향해 구하기를 그쳤더라면 야곱의 생

애 모든 부분에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꽉꽉 들어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와 저주입니다. 죄와 저주에 묶인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선민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선민 또한 죄와 저주에 찌든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선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합니다. 이러한 선민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이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인 나를 죽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티끌만큼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만족함입니다. 만족하기에 이 세상에 대해 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이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 꽉꽉 메우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이게 있어야 하고, 저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향하여 구하기를 중단하고, 졸업하고, 그치고, 마치고, 매듭짓고, 결말지어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공백에서 나오는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네가 그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룬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따라 언제라도 올라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어라. 네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다 쏟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족함이 생깁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요셉의 20여 년을 가득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가득 채워가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족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족하도다"라는 고백에는 '이스라엘인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로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음 쓰이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구하기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구하고, 바라는 주권적 위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20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8~30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땅에 떨어지는 새에게도 내 머리털 하나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이스라엘인 야곱처럼 "족하도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족하도다"라는 고백에는 '이제 더는 이스라엘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구하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의 20년을 채우는 것을 보았으니, 저의 나머지 인생도 채우실 것을 알기에 이제 족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민의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하는 자들이 선민이라면, 이 세상을 향해 "족하도다"라는 고백은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방금 잡은 참치가 배 안에서 펄떡펄떡 뛰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은 20년 요셉의 생애를 채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내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바랄 것이 없지만 마음은 비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따라가서 아버지를 마주하여 그 갈급함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필수이고 의무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선민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죽여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족하도다"라는 고백과 함께 구하기를 중단하고 졸업하심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른 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기질이 완전히 죽게 해주셔서 본문의 야곱처럼 "족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모든 삶의 형편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찰떡처럼 달라붙어 세상을 향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입은 자로서 모든 갈망과 목마름을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